

재즈를 듣다 20 맘보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맘보 QR 코드

아메리카 흑인 노예 중 상당수는 백인 노예주의 강요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러나 흑인의 기독교는 백인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기독교에 아프리카 요소가 뒤섞이며 작자 미상의 수많은 흑인영가, 그리고 가스펠 등 새로운 종교 음악이 탄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 도중 (한국 무속과 비슷하게) 엑스터시를 체험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던 것 같다. 짐작컨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라는 구절을 아프리카식으로 재해석한 게 아닐까? 사실 이런 문화의 뒤섞임은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령 한국의 절에서 종종 보는 ‘산신각’, ‘칠성각’은 본래 불교 전통이 아니라고 한다. 무속에서 기원한 기복 신앙이 불교에 스며든 결과다. 일부 개신교에서 행하는 ‘부흥회’ 역시 유럽 기독교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유 의식이다. 놀랍게도 흑인 교회에서 비슷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어딘가 모르게 한국 무속과 아프리카 종교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엿보인다.

흑인 기독교와 달리 아이티에서는 아프리카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종교가 탄생했다. 노예로 끌려온 요루바(Yoruba)족 갈래에 속하는 폰(Fon) 또는 다호메이(Dahomey)족의 말인 ‘보둔(Vodun)’은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복이나 화를 불러오는 보이지 않는 두렵고 신비한 힘을 가리키는 말로써, 여기에서 부두(Voodoo)교가 나왔다고도 하고, 주-주(Ju-Ju)교라는 종교에서 파생했다고도 한다. 인형의 저주나 좀비 이야기같이 주로 백인들이 만든 영화들로 인해 황당한 왜곡이 있긴 하지만, 부두교 의식 자체는 한국의 무속과 비교해도 별로 다르지 않다. 동물을 죽여 피를 담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또한 한국 제사상에 죽은 돼지머리를 올리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고, 사실 고대 유태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양을 직접 잡아 번제 의식을



행했을 뿐 아니라, 히브리족이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모세에 의해 퍼진 저주를 피하고자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가. 오늘날 부두교는 ‘로아(Loa)’라고 하는 영을 숭배하는 종교다. 흥미로운 건 의식을 주관하는 여사제를 가리키는 말이 맘보(Mambo)라는 사실이다.

쿠바(Cuba)에서 맘보는 춤 이름이기도 하다. 전후 관계가 명확해진 않지만 맘보, 룸바(Rumba), 차차차(Cha Cha Cha)는 같은 계통의 춤이다. 살사(Salsa)는 미국으로 건너가 쿠바 색채가 떨어진 대신 백인 취향이 좀 더 가미된 맘보다.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오늘날 라틴 댄스 음악에 등장하는 온갖 타악기들이 본래는 아프리카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임을 강하게 반증한다고 본다.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 전통이 각각 무술과 종교로 나타났다.

까뽀에이라(Capoeira)의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브라질에 노예로 잡혀 온 흑인들이 주로 앙골라와 콩고라는 것에서 이 지역 전통을 일부 계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춤과 무술의 혼합 그 자체다. 사용되는 악기들 또한 아프리카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칸돔블레(Candomble)는 가톨릭과 결합한 종교로 요루바족 신, 올로룬(Olorun)을 숭배한다.

‘맘보’란 말이 한국에 언제 전해졌는지 확실치 않지만, 1950년대에 ‘닐리리 맘보’를 비롯, ‘도라지 맘보’, ‘아리랑 맘보’ 등이 연달아 발표된 걸 보면 이 시기에 ‘맘보’란 말이



맘보와 룸바, 단존



‘춘향이 맘보’가 수록된 황금심의 앨범

꽤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쟁 이후 주둔한 미군 영향이다. 60년대 이후에도 ‘양산도 맘보’, ‘춘향이 맘보’, ‘맘보 타령’ 등이 나온 거로 봐서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은 듯하다. 하지만 이 노래들은 음악적으로 쿠반 맘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아가 맘보뺑, 맘보바지처럼 아무데나 맘보가 붙곤 했다. 의미를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오남용한 게 아닐까 싶다.

미국에 블루스(Blues)가 있다면 쿠바에는 쏬(Son)이 있다. 블루스가 흑인 음악의 뿌리이듯, 쏬은 쿠바 음악의 근간이다. 쏬에서 서정성이 강조된 볼레로(Bolero, 라벨 볼레로와는 무관한 쿠바 장르)와 빠른 템포의 과라차(Guarachas)가 파생됐다. 한편 쿠바에는 룸바(Rumba)라고 하는 고유의 춤곡이 있다. 댄스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알려진 ‘룸바’ 역시 쿠바에서 기원했지만 상당히 변형되었다. 쿠반 룸바는 크게 얌부(Yambu), 와완코(Guaganco), 콜롬비아(Columbia) 등 세 종류가 있고, 이중 와완코가 룸바를 대표한다. 여성이 손수건을 들고 엉덩이를

썰룩거리며 남성과 함께 움직이는 구애의 춤이다. 지배층이었던 유럽에서 유래한 춤곡도 있었는데 단존(Danzon)이라고 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빅밴드 재즈가 유행하자 이 역시 쿠바에 전해진다. 맘보는 지금 얘기한 다양한 쿠바 음악과 미국 재즈가 하나의 용광로 속에서 새롭게 재탄생한 쿠반 빅밴드 재즈다. 초기 재즈가 지터벅, 린디홉, 폭스트롯 등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었듯 맘보 역시 춤곡이다. 1987년 개봉한 영화 ‘더티 댄싱(Dirty Dancing)’에서 주인

공 패트릭 스웨이지와 파트너 신시아 로즈가 ‘자니스 맘보 (Johnny’s Mambo)’에 맞춰 화려한 춤사위를 펼친다. 이 장면이 개인적으론 처음 기억에 남은 맘보 음악과 춤이었다.



페레즈 프라도

1930년대 말 오레스테스 로페즈(Orestes López)와 카차오 로페즈(Cachao López) 형제에 의해 처음엔 새로운 스타일의 단존, 즉 단존-맘보(danzón-mambo)로 불렸다. 페레즈 프

라도(Perez Prado)는 쿠바의 피아니스트이자 맘보 대중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다. 1950년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체리 핑크와 애플 블로섬 화이트(Cherry Pink and Apple Blossom White)’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독일 음악가 루 베가(Lou Bega)가 히트시킨 ‘맘보 넘버 5(Mambo No. 5)’ 역시 원조는 페레즈 프라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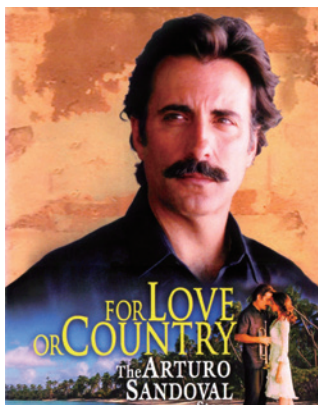
자비에르 쿠가트(Xavier Cugat)는 1990년 개봉한 영화 ‘아비정전’에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리아 엘레나(Maria Elena)’가 삽입돼 재조명받았다. 영화 속에서 장국영이 추는 춤은 근본 없는 막춤이지만 국내에선 맘보로 잘못 알려졌다. 더구나 ‘마리아 엘레나’는 맘보라기보다 차차차(Cha-cha-cha)에 더 가깝다. 차차차는 룸바 및 맘보에서 파생한 또 하나의 춤곡이다. 맘보의 인기는 쿠바에 머물지 않고 바다 건너 미국으로 이어졌다. 살사(Salsa)는 쿠바 냄새를 약간 걷어내고 미국 사람 취향을 약간 엮은 미국식 맘보다. 음악적으로 살사는 맘보 특유의 브라스 섹션을 줄인 대신 리듬을 강조하거나, 밥(Bop), 락(Rockk), 소울의 요소를 가미하여 한층 ‘매콤한’ 음악으로 변신했다. 레이 바레토(Ray Barretto)는 타악기 연주자이자 라틴 재즈 음악가다. 국내에선 1968년 발표한 ‘에시드(Acid)’가 살사 추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1970년 ‘바레토 파워(Barretto-Power)’, 1973년 ‘파괴할 수 없는(= indestructible)’ 등 술한 살사 명반을 남겼다. 셀리아 크루즈(Celia Cruz)는 ‘살사의 여왕’으로 칭송받는 살



레이 바레토



사 최고 가수다. 쿠바 하바나에서 태어났으나,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자 미국으로 망명해 활동했다. 1992년 개봉한 영화 ‘맘보의 왕들(The Mambo Kings)’에서 ‘관타나메라(Guantanamera)’를 열창하기도 했고, 2008년엔 그녀의 전기 영화가 개봉했다.



아르투로 산도발의 앨범

1940년대 뉴욕에서 비밥(Be-bop)이 태동하자 쿠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을 소위 아프로-큐반(Afro-cuban)이라고 한다. 찰리 파커(Charlie Parker)와 함께 비밥 초기를 함께 했던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는 아프로-큐반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차노 포조(Chano Pozo)는 길레스피 밴드에서 활동한 콩가 연주자다. 제일 유명한 곡으로는 1947년 발표한 ‘만테카(Manteca)’가 있다. 아르투로 산도발(Arturo Sandoval) 또한 아프로-큐반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하나다. 2000년 개봉한 ‘리빙 하바나(= For Love Or Country : The Arturo Sandoval Story)’는 그의 미국 망명기를 다룬 영화다. 길레스피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그레미상을 3회 수상했다. 1992년 발표한 ‘클리포드 브라운을 기억하다(= I Remember Clifford)’, 2012년 발표한 ‘친애하는 디즈(매일 당신을 떠올리며)(= Dear Diz (Every Day I Think Of You))’ 등 그가 영향받은 두 연주자를 추모하며 남긴 음반이 특히 감동적이다.

2010년에 ‘치코와 리타(= Chico & Rita)’라는 매우 독특한 감성을 담은 만화 영화가 개봉했다. 쿠바 재즈 피아니스트인 베보 발데스(Bebo Valdés)가 음악을 맡았다. 그는 1940~50년대 쿠바에서 제일 유명했던 트로피카나 클럽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겸 작곡, 편곡자로서 아프로-큐반의 전설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쿠바 혁명 격변기에 멕시코로 망명했다가 스웨덴에 정착하며 수십 년간 음악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94년에 ‘베보 다시 올라타다(= Bebo Rides Again)’란 음악을 발표하며 재기했다. 만화 영화 속 남주인공인 치코는 베보의 인생 중 한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고, 리타는 트로피카나 클럽 간판 가수였던 리타 몬테너(Rita Montaner)를 모델로 했다고 한다. 아프로-큐반 뿐만 아니라 2003년에 플라멩코 가수 디에고 엘 시갈라(Diego El Cigala)와 함께 발표한 ‘검은 눈물(= Lágrimas Negras)’이란 음반도 인상적이다. 베이스 주자 하비에르 콜리나(Javier Colina)와 함께한 ‘빌리지 뱅가드 공연 실황(= Live at the Village Vanguard)’이 그가 남긴 마지막 공연이다. 추초 발데스(Chucho Valdés)는 베보의 아들로 1972년 이라케레(Irakere)라는 밴드를 결성해 활동했다. 앞서 언급한 아르투로 산도발이 이 밴드에서 활동했다. 2008년 아버지와 함께 만든 ‘영원히 함께(= Juntos Para Siempre)’라는 피아노 듀엣 음반이 감동적이다.



베보 발데스의 앨범

곤잘로 루발카바와
찰리 헤이든의 앨범



곤잘로 루발카바(Gonzalo Rubalcaba)는 발데스 부자를 잇는 아프로-큐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1986년 베이스 연주자 찰리 헤이든(Charlie Haden)과 드러머 폴 모티안(Paul Motian)과 함께 한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 이름을 알린 후 블루노트 레이블에서 몇 장의 명반이 나온다. 1990년 ‘발견 - 몽트뢰 공연(= Discovery - Live At Montreux)’, 1992년 ‘축복(= The Blessing)’이 유명하다. 또 2001년 찰리 헤이든이 발표한 ‘야상곡(= Nocturne)’에 참여했다. 제목에서처럼 밤에 듣기 좋은 감성적인 연주다. 🎧